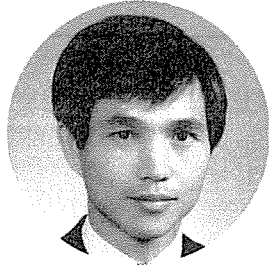


프랑스란 나라



李光炯

韓國과학기술원교수·전산학

호화롭게 장식된 쇼윈도우와 휘황찬란하게 밝혀진 밤거리, 파리에 대한 첫 인상은 이렇게 화려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얼마 있으면 이것은 허상이 아닐까, 프랑스란 나라에 과연 이와 같은 힘이 있는 것일까 하는 회의를 갖게 된다.

자원이라고는 농토와 관광지로 개발된 산악 지역 외에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나라. 게다가 인생을 즐기기 위한 것이라는 듯 모두가 주말을 기다리며 살고 여름에는 몇주씩 바캉스 행렬이 줄을 잇는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밤거리를 찬란하게 밝히고 지구상의 멋쟁이들을 불러모으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세계 최고의 고속전철, 원자력 발전소, 미사일, 전투기, 통신위성 등의 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저력의 원천은 무엇일까, 궁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궁극중에 어느정도 해답을 찾는다는 몇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름대로 깨달은 이들의 저력은 크게 네가지를 꼽을 수 있다.

○ 합리주의 교육

첫째가 교육이다. 이들의 교육은 암기식이나

입시용이 아니라 철저한 이해중심의 교육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식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는 철저한 합리주의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수학과 물리학에 치중하여 사회와 사물을 이해함에 있어서 자연법칙에 입각한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국가를 움직이는 정치인과 행정가들도 대부분 수학과 과학을 전공한 엘리트 출신들이며, 국민들도 합리적으로 생활하고 무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데카르트와 파스칼 이래 대륙의 합리주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근면검약한 생활

둘째는 국민들의 근검한 생활을 들 수 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그들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보다 몇배 더 내핍과 근면한 생활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주당 근무시간이 38시간에 불과한 그들이지만 근무시간에는 철저히 업무에 몰두한다. 근무시간에 잡담을 하거나, 신문을 보고, 사적인 전화를 하는 우리의 사무실 풍경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철저히

개인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한다. 공적인 시간과 사적인 시간을 엄격히 구분하여 생활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절약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양복 몇벌을 가지고 바꾸어가며 입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양복 한벌 사입으려면 결혼식까지 기다리는게 보통이고 심지어 나의 지도교수도 양복이 두벌밖에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갖나 야기의 옷은 새로 사서 입히는 법이 없고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오는 옷을 이용하는 것을 전통으로 여긴다.

또한 모든 건물의 복도는 타임스위치로 되어 있어 한번 켜면 3분 후에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며, 사람이 없는 방은 항상 소등하는 습관이 배어 있다.

매주 일요일에는 벼룩시장이라는 중고품 시장이 열리는데 이곳에는 남이 쓰던 물건을 싸게 사거나 자기 것과 바꾸려는 사람들로 늘 북적된다.

○ 과학기술자우대

셋째는 기술에 대한 인식이다. 파리에 가면 콩코드광장이 있고, 이 광장의 중앙에 우뚝 서 있는 「오베리스크」가 눈길을 끈다. 수십 미터나 되는 이 기념비석은 기원전에 꽃피운 나일강 문화의 산물로서 비석의 사면에는 이집트의 상형문자가 새겨져 있다.

이집트 비석이 여기에 와 서있는 사연이 궁금하던 차에 비석의 좌대에 눈이 간다. 좌대에는 이 비석에 관한 사연이 간단히 소개되어 있다. 19세기 초에 이곳으로 옮겨다 세웠다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전 공사는 엔지니어 누구에 의하여 몇년 동안 이뤄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당시 대통령의 이름은 새겨져 있지 않다.

이것을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든다. 오래 간직하고 있던 의문점이 풀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식대로 한다면 이 공사를 지

시한 왕이나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법하지 않은가. 그 대신 이들은 공사를 지휘한 기술자의 이름을 새겨 이 기념물과 함께 영광스럽게 기리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서양 사람들은 모든 기념물에 공사 책임자인 엔지니어의 이름을 새기고 있다고 한다. 「에펠」이라는 기술자가 설계하여 세운 기념탑을 「에펠탑」이라고 부르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같이 기술자를 우대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기술자가 되기를 희망했고, 따라서 기술이 발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선별적인 투자

마지막으로 국가 정책을 들 수 있다. 프랑스란 나라는 별로 크지 않은 나라이다. 국토가 남북한을 합한 정도, 그러나 자존심만큼은 어느 민족보다도 강하다. 무엇이든지 했다 하면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자기 나름대로의 특색과 개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프랑스는 제한된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지혜를 터득했다. 2차대전 후 어지럽던 정치와 사회를 드골의 등장으로 정비하고, 중점개발할 과학분야를 몇개 선정하여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때 선정된 몇개의 대규모 과학(big science)이 바로 원자력, 항공, 우주, 교통산업 등이며 이것들이 오늘날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그때 국론을 통일하지 못하고 여러 분야에 산발적인 분산 투자를 했더라면, 오늘날 프랑스 과학을 세우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의 자존심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절약과 근면한 생활을 실천하고 있다.